

베를린 시청 환영식 답사

존경하는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시장,
그리고 귀빈 여러분,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시장님과 함께 브란덴부르크 문을 둘러보았습니다. 독일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유럽통합 시대를 열어 가는 희망의 문으로 우뚝 선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베를린 시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옛 동베를린 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해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규모의 관광객이 베를린을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베를린을 명실상부한 유럽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는 시장님의 지도력과 베를린 시민의 저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과 독일은 올해로 수교 122주년이 됩니다. 우리 국민이 유럽에서 가장 가

깝게 생각하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나의 이번 방문으로 양국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수도 베를린은 이러한 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9월에 이곳 베를린에서 열리는 아·태주간행사에서 한국을 포커스 국가로 선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에 베를린 광장이, 베를린에는 서울공원이 조성되는 것도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우리 두 나라 국민들이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베를린에 살고 있는 6천여 우리 동포들은 두 나라 국민의 유대를 강화하는 가교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베를린 시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